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에 관한 연구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양 정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에 관한 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양 정

인 준 서

양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산업화와 미국 중심의 대중문화의 시대였던 20세기는 세기말이 되면서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다원화된 세계간의 충돌 현상이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서 패션은 기능적으로 분화되며 서로 작용하면서 대중사회, 대중문화로서의 패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또한 혼합 현상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합한 시대적 혼합을 바탕으로 과거의 장식적 요소들을 이용하거나 고전적 의미를 재해석하며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각 지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서 각국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융합되기 시작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성 개념의 변화와 상·하위문화의 개념 등이 혼합되어 인용, 재사용, 모방 등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혼합현상은 각기 상이하고 이질적인 현상들의 단순 통합이 아닌 함께 뒤섞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현상이며, 다양한 혼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대 패션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스타일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지향할 것이고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혼합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그 표현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을 분석하여 혼합 현상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혼합현상이 일시적인 문화현상이 아닌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문화의식의 한 방법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디자이너들이 혼합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창조적인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혼합 현상에 대해 국내외 문헌과 정기 간행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한다. 현대 패션의 범위는 혼합 현상이 시작되는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로 정하고, 각 시대별 패션의 변천과정 속에서 나타난 혼합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혼합 현상의 표현 특성을 분류하고, 분류되어진 동·서양문화, 상·하위문화, 성, 시간, 소재, 장르에서 나타나는 혼합 특징들을 2000년대 이후의 현대 패션 컬렉션들의 분석을 통하여 고찰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세계적인 컬렉션에서 발표된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Elle Korea, Fashion magazine, Fashion Insight Collection, Global Fashion Report, Style.com, Vogue Korea 등에서 수집, 선정되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한협상의 표현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양문화의 혼합'은 두 문화 간의 철학적, 문화적 교류로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동양과 서양의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 다양한 퓨전 패션이 연출되고 있었다.

둘째, '상·하위문화의 혼합'은 하위문화 스타일이 상향 전파되면서 하이패션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어, 1990년대의 하위패션이었던 히피 룩과 펑크 룩, 그런지 룩 등이 상향 전파 현상으로 급속도로 발달되었다. 이러한 하위문화의 확산은 상류 엘리트들에게까지 전파되었고,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도 다양한 영감을 주게 되었다. 즉,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조화와 혼합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들이 도출되게 되었다.

셋째, '성의 혼합'은 여성과 남성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디자인 발상에서부터 성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거부하지 않은 채 서로의 아이템들을 차용함으로써 한 개인에게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 공존하는 성 혼합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패션에 있어서는 남성적인 면

과 여성적인 면을 하나로 통합시켜 양성성과 중성성을 강조한 스타일들이 유행하게 되었다.

넷째, '시간의 혼합'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스타일이 혼합됨으로써 각 시대의 특성이 공존하는 혼합이며, 시대적 경계를 무너뜨려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패션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혼합현상은 원시주의와 복고주의의 레트로 룩과 프리미티브 룩을 그 예시라 할 수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혼합현상으로는 미래적인 감각이 풍부한 패션을 총칭하는 퓨처리즘룩이 발생되었다.

다섯째, 서로 다른 '소재의 혼합'은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소재나 상반된 소재를 사용하여 소재 자체의 경계를 허물어 소재 표현의 풍부함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소재에서의 혼합은 소재의 두께나 광택, 투명도, 패턴의 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질이 다른 이질적인 소재의 대비 등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여섯째, '장르의 혼합'은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으로 장르 내의 분화에 의해 새로운 창조 형태의 예술이 나타나게 되었고, 획일적인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스포티 퓨전, 속옷의 겉옷화 등 패션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자유롭게 나타나게 되었다.

다양한 혼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대 패션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스타일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지향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혼합 패션은 그 사회의 반영인 동시에 각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미의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혼합 현상은 세기 말과 밀레니엄에 나타난 일시적인 패션 현상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 연구의 한 방향으로서 개성 있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적 개발의 한 방향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현대 패션의 혼합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창조적인 디자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 문 개 요

Ⅰ. 서론 ····· 1

Ⅱ. 이론적 배경 ····· 3
1. 혼합의 개념 ····· 3
2. 혼합의 특성 ····· 4
3. 혼합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 12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의 표현특성 ····· 17
1. 동·서양문화의 혼합 ····· 17
2. 상·하위문화의 혼합 ····· 22
3. 성의 혼합 ····· 27
4. 시간의 혼합 ····· 33
5. 소재의 혼합 ····· 39
6. 장르의 혼합 ····· 45

Ⅳ. 결론 ····· 51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혼합 용어의 구분 및 특징 ····· 11
<표 2>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혼합현상의 특성 ····· 15

그 림 목 차

<그림 1> Roberto Cavalli 2003 S/S ····· 20
<그림 2> Ulyana Sergeenko 2014 F/W ····· 20
<그림 3> Giambattista Valli 2013 F/W ····· 20
<그림 4> Gucci 2016 F/W ····· 20
<그림 5> Kenzo 2011 S/S ····· 21
<그림 6> Giorgio Armani 2011 F/W ····· 21
<그림 7> Prada 2013 S/S ····· 21
<그림 8> Christian Dior 2011 S/S ····· 21
<그림 9> Chanel 2016 Cruise ····· 21
<그림 10> Carolina Herrera 2011 S/S ····· 21
<그림 11> Hippie style ····· 25
<그림 12> Edwardian style ····· 25
<그림 13> Punk style ····· 25
<그림 14> Grungy style ····· 25
<그림 15> Anna Sui 2014 S/S ····· 26
<그림 16> Roberto Cavalli 2017 S/S ····· 26
<그림 17> Moschino 2003 F/W ····· 26
<그림 18> Jean Paul Gaultier 2011 S/S ····· 26
<그림 19> Vivienne Westwood 2003 S/S ····· 27
<그림 20> Dries Van Noten 2013 S/S ····· 27
<그림 21> Bold look ····· 31
<그림 22> Androgynous look ····· 31
<그림 23> Hiphop look ····· 31

<그림 24> Genderless look ····· 31
<그림 25> Giorgio Armani 2014 S/S ····· 32
<그림 26> Yohji Yamamoto 1999 S/S ····· 32
<그림 27> Jean Paul Gaultier 2015 F/W ····· 32
<그림 28> Vetements 2015 F/W ····· 32
<그림 29> Unisex look ····· 33
<그림 30> Metro Sexual look ····· 33
<그림 31> Retro look ····· 36
<그림 32> Primitive look ····· 36
<그림 33> Viktor&Rolf 2002 S/S ····· 37
<그림 34> D&G 2006 F/W ····· 37
<그림 35> Ralph Lauren 2017 F/W ····· 37
<그림 36> MiuMiu 2016 F/W ····· 37
<그림 37> Futurism look ····· 38
<그림 38> Iris van Herpen 2012 S/S ····· 38
<그림 39> Malo 2004 F/W ····· 38
<그림 40> Matthew Williamson 2007 F/W ····· 38
<그림 41> Sonia Rykiel 2016 F/W ····· 42
<그림 42> Alexander McQueen 2017 S/S ····· 42
<그림 43> Alberta Ferretti 2016 F/W ····· 43
<그림 44> Louis Vuitton 2011 F/W ····· 43
<그림 45> Veronique Branquinho 2016 F/W ····· 43
<그림 46> Gucci 2015 F/W ····· 43
<그림 47> Karl Lagerfeld 2010 F/W ····· 44
<그림 48> Paco Rabanne 2014 F/W ····· 44
<그림 49> Gareth Pugh 2015 F/W ····· 44

<그림 50> Issey Miyake 2016 S/S ····· 44
<그림 51> Miwha Hong 2003 S/S ····· 48
<그림 52> Under Cover 2005 S/S ····· 48
<그림 53> Salvatore Ferragamo 2012 Resort ····· 48
<그림 54> Sporty Fusion look ····· 48
<그림 55> Y-3 2017 F/W ····· 49
<그림 56> Coach 2016 F/W ····· 49
<그림 57> Chanel 2017 S/S ····· 49
<그림 58> Moncler Grenoble 2016 F/W ····· 49
<그림 59> Soe 2013 F/W ····· 50
<그림 60> Versace 2014 S/S ····· 50
<그림 61> Marcelo Burlon 2015 F/W ····· 50

Ⅰ. 서 론

현대 사회는 국제화와 세계화, 다문화 현상으로 인하여 시대, 공간적 문화 공유와 혼합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혼합 현상은 일상생활이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패션은 기술의 발달로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융합, 보완되어 나타나고 있다. 동양과 서양,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남성과 여성 등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이 사라지고 이들을 혼합하는 제 3의 문화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가 현대 사회의 각 영역의 융합과 경계의 모호성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듯이[1], 최근 문화·예술에서도 요소들의 혼합을 통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닌 결과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 패션분야에서도 자유로운 디자인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게 되었고, 신소재의 개발과 기존 소재의 재해석 등을 통하여 다양한 요소가 혼합되어 디자인이 창출되고 있다[2]. 혼합 현상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합한 시대적 혼합을 바탕으로 과거의 장식적 요소들을 이용하거나 고전적 의미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각 지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서 각국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융합되기 시작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성 개념의 변화와 상·하위문화의 개념 등이 혼합되어 인용, 재사용, 모방 등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

1) Alvin Toffler(1997). 미래 쇼크.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p. 30.
2) 박문희(2009).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

다. 이러한 혼합현상은 각기 상이하고 이질적인 현상들의 단순 통합이 아닌 함께 뒤섞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현상이며, 다양한 혼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대 패션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스타일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지향할 것이고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혼합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그 표현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을 분석하여 혼합 현상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혼합현상이 일시적인 문화현상이 아닌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문화의식의 한 방법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디자이너들이 혼합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창조적인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첫째, 혼합의 개념과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혼합 현상에 대해 국내외 문헌과 정기 간행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한다. 현대 패션의 범위는 혼합 현상이 시작되는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로 정하고, 각 시대별 패션의 변천과정 속에서 나타난 혼합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혼합 현상의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혼합 현상의 표현 특성을 분류한다. 셋째, 혼합 현상의 표현특성으로 분류된 동·서양문화, 상·하위문화, 성, 시간, 소재, 장르에서 나타나는 혼합 특징들을 2000년대 이후의 현대 패션 컬렉션들의 분석을 통하여 고찰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세계적인 컬렉션에서 발표된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Elle Korea(www.elle.co.kr), Fashion Insight Collection (www.fi.co.kr/collection/index.asp), Style.com(www.style.com), Vogue Korea(www.vogue.co.kr)등에서 수집, 선정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혼합의 개념

혼합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라틴어 접두사인 포스트(post)와 근대를 의미하는 모던(modern)의 결합어이다.[3]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1960년대 이후 해체이론과 후기 자본주의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4]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과 단절, 불확실성, 파편화, 비제시성과 비재현성, 그리고 아이러니와 패러독스 등에 있어 모더니즘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탈 중심화 현상에 의해 다문화주의, 절충주의, 장르와해, 의미의 불확실성 등으로 나타나며 1960년대부터의 대중문화 확산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5] 20세기 중반 이후 문화 전반에 걸쳐 자주 거론되어 온 혼합현상은 포스트모던 패션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현상이다.

혼합의 사전적 의미는 뒤섞여서 한곳에 합쳐진다는 의미[6]로, 화학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아니하고 섞이는 집합체를 뜻한다[7]. 복합은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며, 통

3) 신승환(2003).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서울: 살림출판사, pp. 7-15.
4) 두산백과. 자료검색일 2016. 06. 30,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3925&cid=40942&categoryId=32856
5) 김하연(2001). 현대 패션의 창조적 디자인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6) Dictionary.com. 자료검색일 2016. 05. 13, 자료출처 http://www.dictionary.com/browse/mix
7) 화학대사전. 자료검색일 2016. 07. 05, 자료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22350&cid=42419&categoryId=42419

합은 모두 합쳐 하나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8] 결합은 둘 이상의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로 된다는 뜻이고 비슷한 말로 융합은 여럿이 녹아서 하나로 합침이라는 뜻이다.[9] 따라서, 혼합은 '크로스오버(Crossover)', '하이브리드(Hybrid)', '멀티컬쳐(Multiculture)', '혼성모방(Pastiche)', '퓨전(Fusion)'과 유사하나 더 포괄적이고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0].

2. 혼합의 개념 및 특성

서양예술사를 살펴보면 혼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로, 1960년대 이후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해체이론과 후기 자본주의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고전주의[11]의 영향으로 이집트, 그리스 미술과 같은 시대의 혼합과 원시미술, 동방풍 그리고 일본판화 등의 국가 간 문화의 혼합이 나타났다.[12] 또한 소재의 드레이퍼리 성질이나 구성 자체에 중점을 두어 신체에 걸쳐질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식과 인체의 혼합이 시도되었다. 20세기 시대의 혼합과 국가 간 문화의 혼합은 지속되었고, 팝아트와 같은 사회계층에 따른 문화혼합과 성의 혼합 및 다양한

8) 교육학용어사전. 자료검색일 2016. 06. 2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0829&cid=42126&categoryId=42126
9) 최수아(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10) 박문희(2009). 전게서, p. 4.
11) 고전주의는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신을 이어받아, 17,18세기의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일어났던 문예사조를 일컫는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운동에서 출발한 고전주의 정신이 프랑스, 영국, 독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서에 마는 문학적 이상을 구현하지만, 고대 그리스 , 로마 시대의 작가들을 전범으로 삼아 그들의 문학적 특성을 계승하고자 한 문학운동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지닌다. 17, 18세기의 고전주의적 경향을 낭만주의 이후에 경멸적인 의미로 의고전주의라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고전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신고전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12) 박문희·임문정(2012). 니트웨어 혼합현상의 특성에 나타난 색채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지, 12(2), p. 488.

장르에서의 혼합이 나타나게 시작하였다.[13]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혼합현상이 더욱 부각되었고, 특히 포스트모던 특성 중 다원론, 탈 이성주의, 탈 창조, 해체, 모호성, 고정관념의 탈피 등으로 인해 대립체계가 붕괴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붕괴로 시대의 혼합현상이 나타났으며, 지역, 서양, 동양의 경계 붕괴로 국가 간 문화의 혼합현상도 발생되었다.[14] 주류, 하위문화의 경계 붕괴로 사회계층에 따른 문화의 혼합이 발생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성 붕괴로 성의 혼합이 나타났다. 예술품, 기성품, 현실, 가상, 인공, 자연의 대립체계 붕괴로 소재 및 스타일에서의 혼합과 현실과 가상, 인공과 자연이 융합하는 다양한 장르의 혼합이 나타나게 시작하였다.[15] 포스트모던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은 키치, 혼합 현상의 조형적[16] 특성을 가지며, 문화의 공유, 고정관념 탈피, 의미를 상실한 이미지, 정체성의 해체 및 모호성의 추구, 무한한 상상력의 창출, 즐거움과 유희 추구 등이 그 예시이다.[17]

Thesaurus.com[18]에 따르면, 혼합(mix)의 유의어로는 blend, fuse, cross, compound, hybridize, merge, transfuse, unite 등이 있으며, 낱말창고[19]에서는 배합, 화합, 혼성, 혼입, 혼화 등을 혼합과 비슷한 의미의 용어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혼합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각기 사용되는 영역이 다르며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중문화 안에

---

13) 조은기(2004). 현대미술의 혼성성의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5-37.
14) 신정임(2008). 현대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혼성모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0-14.
15) 김희균(1999). 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6-38.
16) 형태적 특징은 감성적이었지만 그들은 비판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었다. 스타일에 있어서 낙천적이며, 성숙을 거부하며 직관적인 것이 형태상 특징으로 이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유래 없는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였다.
17) 최수아(2003). 전게서, p. 30.
18) Thesaurus.com. 자료검색일 2016. 05. 24, 자료출처 http://www.thesaurus.com/browse/mix
19) 낱말창고. 자료검색일 2016. 07. 14, 자료출처 http://www.wordnet.co.kr/

서 융합, 혼합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박문희·임민정(2012)[20]의 연구에서는 혼합과 뜻이 비슷한 용어로 퓨전과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하였고, 최수아(2003)[21]는 혼합이 퓨전이나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이종교배, 멀티컬쳐, 혼합주의와 유사한 용어라 정리하였다. 이유미(2013)[22]는 혼합과 융합의 의미를 가진 하이브리드의 범주로 퓨전과 크로스오버, 컨버전스 등의 용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혼합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Thesaurus.com에서 제시한 혼합의 유의어에서 파생된 단어들 중 선행연구들에서 혼합과 비슷한 용어라 제시한 크로스오버(Crossover), 하이브리드(Hybrid), 퓨전(Fusion), 혼성모방(Pastiche)으로 혼합 용어를 나누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는 cross와 over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넘어서 교차 하다'라는 의미를 추측할 수 있듯이, 한 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방향의 길이 교차하게 되는 지점을 지칭한다.[23] 사전적 정의는 교차로, 육교, 염색체의 교차, 갈림길의 등을 의미한다.[24] 협의의 의미에서 크로스오버는 좀 더 세분화하여 표현할 때 사용되며,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생성된 제 3의 문화를 일컫는 이종교배의 의미를 담고 있다.[25] 즉, 크로스오버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이 만나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

20) 박문희·임문정(2012). 전게서, 12(2), p. 487.
21) 최수아(2003). 전게서, p. 6.
22) 이유미(2013). 하이브리드 특성을 반영한 니트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
23) 홍경민(2012). 크로스오버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7-55.
24) Dictionary.com. 자료검색일 2016. 06. 25, 자료출처 http://www.dictionary.com/browse/crossover
25) 박문희(2009). 전게서, p. 5.

며 전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소들의 조화나 조합'이라 정의할 수 있다. 허진설(2013)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보는 크로스오버의 특징에 대하여 관념의 크로스오버, 시간의 크로스오버, 공간의 크로스오버로 구분하였다. 관념의 크로스오버는 저급문화로 취급되었던 대중문화가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고급문화와 뒤섞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의 크로스오버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크로스오버를 뜻한다. 공간의 크로스오버는 세계화와 과학, 통신의 발달로 각 나라들 간의 교류가 발달되면서 공간의 구애받지 않고 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26]

이처럼 크로스오버는 사람들의 사고와 관념, 시간, 공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디자인이나 패션분야에서도 타 장르와의 결합, 상호작용 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27] 시대의 흐름이 빨라지고 복잡해지면서 다(多)기능적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소재와 장르가 합쳐진 크로스 오버의 디자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복식에서의 크로스오버는 각기 다른 분위기의 아이템들을 코디네이션 하고 착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8].

(2)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섞여진, 잡종의, 혼성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29], 각기 다른 인종, 품성, 문화, 전통 등이 융합되어 출현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30] 이는 생물학적 용어로 대립을 기반으로 하는

---

26) 허진설(2013). 크로스오버를 통한 클래식의 대중화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27) 정주현·이근(2001). 자동차 디자인의 새로운 트렌드연구: 크로스오버 개념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지, 41(-), p. 156.
28) 김미현(2002). 크로스오버 디자인 연구 확대와 과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29) 김경란(2005).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7.

양자공존과 이해하기 힘든 전체적 융합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구조적 연속성과 표현적 불연속성을 의미한다[31].

이러한 하이브리드 경향은 오늘날 현대 패션과 예술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역사적 바탕을 두고 차츰 발전과 변화를 거쳐 온 현상이다.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활발했던 유럽에서는 17~18세기 유행하던 로코코 양식에서 중국풍의 문양과 장식요소들이 발견되었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아르누보 예술사조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오리엔탈리즘 경향이 결합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시대가 변화하면서 하이브리드는 주류 문화나 예술 성향에 함께 표현경향이 달라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32].

예술과 디자인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는 각기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디자인이 결합하는 현상으로서, 혼합되는 과정에서 각 장르가 가지고 있던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숨겨지지 않고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예술과 디자인의 장르에서의 하이브리드는 각각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융합되어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낸다는 특징을 가진다[33]. 미술에서의 하이브리드는 '총체적 예술' 또는 '예술융합'이라 불리며, 콜라주(collage)의 개념과 유사하다.

하이브리드 패션현상은 문화, 계층, 성별, 시대양식 등의 요소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21세기는 풍요롭고 빠른 속도의 첨단 문명화가 되기를 원하는 심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게 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혼합시켜 공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34]

---

30) 허정선(2010).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의 혼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1), p. 108.
31) 박홍(1991). 현대건축과 실내 디자인의 혼성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1(1), p. 88.
32) 정소미(2007). 디자인 호텔의 하이브리드 성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1.
33) 박문희(2009). 전게서, p. 8.

(3) 퓨전

퓨전은 라틴어인 'Fuse'에서 온 단어이며 녹아 섞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탄생된 제 3의 특이한 문화를 일컫는 것이다.[35] 퓨전 현상은 20세기에 들어서 다다이즘(dadaism)과 팝 아트(pop art)에서 시작되었고, 미술, 건축, 패션, 디자인, 사진, 영화까지 확산되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회화, 사진과 컴퓨터의 합작, 애니메이션과 회화의 합작, 제어계측 공학 기술과 설치 미술의 합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퓨전은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만나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의 조화로움을 의미한다.[36]

박수현(2005)의 연구에 따르면, 퓨전의 일반적 특성은 "다양성", "공존성", "절충・재조합"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퓨전의 다양성은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욕구만큼이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 다원성(Cultural diversity)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다원성은 다른 문화에 자극을 받고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새로운 자양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함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37] 퓨전의 공존성은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퓨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문화가 현재의 미래와 섞여 혼합되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 동시에, 지역적인 공간 즉 동양과 서양을 절충·혼합하여 어우러지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38] 퓨전의 절충 및 재조합은 한 단위 내에서 공존하던 이질적인 요소

34) 김경임(2008). 현대 헤어디자인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73-88.
35) 홍경민(2012). 전게서, p. 22.
36) 유수연(2000). 디지털 시대의 퓨전 문화와 퓨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5(-), p. 63.
37) 동아일보(1995. 02. 12). 문화개방과 주체성. 자료검색일 2016. 06. 01, 자료출처 http://newslibrary.naver.com/
38) 오승혜(2000). 20세기 후반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Fusion현상에 관한 연구.

들이 뒤섞여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기존의 성격과 특징이 변조된 새로운 이미지로 재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39].

패션에서의 퓨전현상은 키치(Kitsch), 브리콜라지(bricolage), 혼성모방을 의미하며, 내적 의미로는 패션문화의 공유, 고정관념의 탈피, 무한한 상상력의 창출, 유희 추구 및 이상 추구를 들 수 있다.[40]

(4) 혼성모방

혼성모방은 영어로 패스티쉬(Pastiche)이며, 이태리어 'pasticcio'에서 온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몇 개의 다른 재료를 담는 'pasty'혹은 '파이'그릇으로 번역되었다.[41] 혼성모방은 '여러 가지 재료들의 메들리, 뒤범벅, 잡동사니, 난잡'[42] 혹은 '다른 예술작품으로부터 스타일, 테크닉, 혹은 모티브를 의식적으로 빌려온 이미지로써 다소연관 없는 조합'[43]으로 정의된다. 혼성모방은 기존 작품에 대한 명백한 의도가 조금 희석된 채 과거의 작품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작가의 뜻을 보태 혼합하여 이루어진다.[44] 혼성모방은 시공을 초월하여 선택, 융합된 것으로 과거 그대로의 재현이 아닌 새로운 거듭남을 의미한다. 동시에 형태에 따른 내용의 전환과 목적의 변화도 수반한다.[45]

진경옥·박민여(2000)는 패션에 있어 혼성모방은 복고성과 대중문화의 절충성,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심미성 등을 통하여 패션에 새로운 법칙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46] 이러한 패션의 혼성모방은 복합적인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

39) 박수현(2005).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40) 최수아(2003), 전게서, p. 30.

41) 신정임(2008). 전게서, p. 6.

42) Oxford English Dictionary. 자료검색일 2016. 05. 12, 자료출처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pastiche

43) The Dictionary of Art. 자료검색일 2016. 07. 23, 자료출처 http://www.oxfordartonline.com/public/;jsessionid=3934F3994432BA4EA7AA878E207C05B9

44) 조은기(2004). 전게서, p. 35.

45) 신정임(2008). 전게서, p. 82.

구조와 혼용되어진 컨셉과 소재, 재료와 표현방식들로 인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내적으로 함축되어 있고, 사회문화적 이슈들을 은유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유추해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47]

이와 같이 혼합용어는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퓨전, 혼성모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사용되는 영역이 다르고 차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안에서 융합, 혼합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혼합용어의 구분 및 특징

구분	정의	특징	공통점
크로스오버 (Crossover)	교차 결합	-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의 조화나 조합 - 퓨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며 세분화하여 표현할 때 사용	- 모방 - 관련성 없는 요소들의 결합
하이브리드 (Hybrid)	혼성 혼합	- 역사적 바탕을 두고 발전, 변화 - 각 장르의 예술디자인간의 결합	
퓨전 (Fusion)	융합 복합	-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의 조화 -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탄생된 제 3의 특이한 문화	
혼성모방 (Pastiche)	잡종 혼성	- 기존 작품에 대한 의도를 희석 - 과거 작품들을 부분적으로 인용, 작가의 뜻을 보태어 혼합	

46) 진경옥·박민여(2000).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한국복식학회지, 50(5), pp. 143-160.

47) 허정선(2010). 전게서, p. 109.

3. 혼합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혼합 현상의 경향은 오늘날 대중문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꾸준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왔다. 혼합 현상은 모더니즘 이후로 불확실성의 시대라 일컬어지지는 현대사회의 양상에 걸맞는 상황이며, 예술과 건축, 복식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전반적 상황이기도 하다.[48] 패션은 대중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회화, 조각, 음악 등의 순수 응용 예술의 영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4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서 패션분야에서의 혼합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의 표현 특성을 분류하고자 한다.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에 대해 선행 논문을 연구해본 결과, 조아라(2011)[50]는 데님 패션에 나타난 퓨전현상을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퓨전, 동·서양, 기타지역과의 공간의 퓨전, 앤드로지너스와 유니섹스, 젠더리스로 나타나는 성의 퓨전, 상·하위문화의 퓨전, 소재, 스타일, 상황 등의 장르의 퓨전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을 연구한 김경란(2005)[51]은 복식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분류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결합, 동양과 서양의 결합, 상류와 하류, 주류와 비주류의 결합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오승혜(2000)[52]는 퓨전 현상을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절충, 보완되어 혼성된 다문화 시대의 현상이라 주장하였고, 지역별, 인종별, 계층별,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첨단과 복고, 남성과

48) 이일형(1995). 현대 건축의 혼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1(1), p. 35.
49)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Ⅱ). 한국복식학회지, 37(-), pp. 369-392.
50) 조아라(2011). 현대 여성 데님 패션의 코디네이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3-36.
51) 김경란(2005). 전게서, pp. 44-89.
52) 오승혜(2000). 전게서, pp. 15-30.

여성 등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과 상극의 논리를 뛰어 넘어 또 하나의 '제3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서양, 시·공간, 소재의 혼합으로 나누어 복식에 영향을 미친 퓨전현상을 연구하였다. 신정임(2008)[53]은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에 대하여 한 스타일 안에서 여러 시대를 동시 표현하는 시대의 혼성과 공간의 혼성, 상·하위문화의 혼합, 성적 혼합, 이질적 소재를 사용한 오브제의 혼합 색상, 대중 영역으로의 예술적 혼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최혜정(2000)[54]은 20세기 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양성화 경향, 제3세계와의 결합, 테크노와 사이버의 결합으로 구분하여 하이브리드 패션을 하이패션과 스포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김미현(2002)[55]은 크로스오버의 유형을 동·서양의 만남인 공간적 형태와 다른 시대적 양식들의 결합인 시간적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유미(2001)[56]는 퓨전 현상을 젠더리스와 같은 성의 혼합과 동·서양의 혼합, 과거와 미래, 옛것과 새것이 섞이는 시간의 혼합,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혼합으로 나누었다.

최수아(2003)[57]는 패션에 나타난 퓨전현상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경계 붕괴로 나타난 시대의 퓨전과 세계와 지역, 서양과 동양의 경계 붕괴로 나타난 국가 간의 퓨전, 일상생활 경계의 모호함으로 나타난 T.P.O의 퓨전, 주류와 하위문화의 경계 붕괴로 나타난 사회계층에 따른 문화와 장르의 퓨전, 남성과 여성의 경계 붕괴로 나타난 성의 퓨전으로 구분하였다.

패션디자인과 타 디자인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현상을 살펴본 방기정(2010)[58]은 혼합현상을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섞이는 시·공간의 혼합과 오

53) 신정임(2008). 전게서, pp. 15-20.
54) 최혜정(2000).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9-98.
55) 김미현(2002). 전게서, pp. 30-39.
56) 이유미(2001).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6.
57) 최수아(2003). 전게서, p. 30.
58) 방기정(2010).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

리엔탈리즘과 젠스타일의 동·서양의 혼합, 하위문화와 성의 혼합, 탈 장르화, 민족적 요소의 결합 등으로 분류하여 그 개념을 살펴보았다.

박문희(2009)[59]는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을 과거, 현재, 미래의 혼합인 시간의 혼합과 나라와 나라, 아시아와 유럽, 동양과 서양의 혼합, 상·하위문화, 남성과 여성의 혼합인 성의 혼합, 스타일의 혼합, 타소재의 혼합, 기능의 혼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신재룡(2002)[60]은 퓨전 현상을 동·서양의 혼합과 엘리트와 대중의 혼합, 전통과 현대의 혼합, 상상력과 도전의 현상으로 구분하였고, 박수현(2005)[61]은 퓨전 문화에서의 혼합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 동양과 서양, 유럽, 기타 지역에서의 공간,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남성과 여성의 성, 장르로 구분하여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미희(2009)[62] 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현상을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의 시간, 동양과 서양, 주류와 비주류, 상·하위문화,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젠더리스, 호모 섹슈얼리즘의 성, 패션소재와 기술요소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크로스오버와 하이브리드, 퓨전과 혼성모방 등은 그 탄생과 의미가 각각 차이가 있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하나의 스타일로 확정짓기 어려운 상이한 것 또는 새로운 것들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는 창조 과정이라는 점에서 혼합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혼합의 개념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상의 선행연구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1-84.

59) 박문희(2009). 전게서, pp. 82-120.

60) 신재룡(2002). 현대패션에 반영된 퓨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7-23.

61) 박수현(2005). 전게서, p. 7.

62) 하미희(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 세계 4대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4-80.

들에서 제시한 혼합 현상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혼합 현상의 특성

연구자 (년도)	혼합 현상의 특성						
오승혜 (2000)	동·서양	-	성	시간	소재	-	-
최혜정 (2000)	제3세계	-	양성화	-	-	문화	테크노·사이버
이유미 (2001)	동·서양	상·하위	성	시간	-	-	-
김미현 (2002)	동·서양	-	-	시간	-	-	-
신재룡 (2002)	동·서양	엘리트·대중	-	전통·현대	-	-	상상력 도전
최수아 (2003)	세계·지역 동·서양	주류·하위문화	성	과거·현재·미래	-	장르	T.P.O
김경란 (2005)	동·서양	상·하류 주류·비주류	-	현재·미래	-	-	-
박수현 (2005)	동·서양 유럽 기타	상·하위문화	성	시간	-	장르	-
신정임 (2008)	공간	상·하위문화	성	시대	소재 (오브제)	-	색상 무늬 예술
박문희 (2009)	국가 아시아·유럽 동·서양	상·하위문화	성	시간	소재	-	스타일 기능
하미희 (2009)	동·서양	주류·비주류 상·하위	성	시간	소재	문화	기술 과학
방기정 (2010)	공간 동·서양	하위문화	성	시간	-	탈장르	기술 민족
조아라 (2011)	동·서양 기타	상·하위	성	시간	소재	장르	-

<표 2>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혼합 현상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혼합 현상으로 동양과 서양의 혼합과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혼합, 남성과 여성의 성의 혼합,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의 혼합, 소재의 혼합, 장르의 혼합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혼합 현상에 대한 연구는 서로 융합되고 개발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양식을 창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선행논문들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혼합 현상에 대한 분류를 동·서양문화, 계층의 상·하위문화, 성, 시간, 소재, 장르로 구분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의 표현특성

1. 동·서양문화의 혼합

20세기 전의 동·서양문화는 두 문화 간의 상호보완적인 교류이기보다 서양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혼합 형태이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동양의 정신적인 가치 추구로 동양철학과 문화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동·서양의 철학적, 문화적인 교류로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혼합된 형태로 변화되었다.[63]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가 도래하면서 다른 문화나 시대로부터 디자인적 요소를 차용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타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고와 교통수단의 발달, 정보 통신기술의 성장으로 각 문화들 간의 구분이 약화되고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써 각국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융합되기 시작한 것이다.[64] 1980년대의 일본 디자이너 Kenzo를 선두로 Issey Miyake, Rei Kawakubo, Yohji Yamamoto 등과 같은 일본 출신 디자이너들이 세계 패션계로 진출하면서 일본의 문화와 패션이 세계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들은 재패니즈(Japanese)룩의 유행을 이끌기도 하였다.[65] 일본 디자이너들은 일본풍의 기모노, 중국의 치파오, 인도의 사리, 모로코의 하렘팬츠와 터번, 동남아시아의 아오자이와 사롱, 아프리카 텍스타일과 장신구, 인디언 룩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의상들을 서구적 패션에 융합하여 나타내었다.[66]

---

63) 정지숙(2005).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중국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18.
64) 박수현(2005). 전게서, p. 66.
65) 임영자·김선영(2000). 현대 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0(4), pp. 37-51.
66) 이건희(2009). 재패니즈 룩에 관한 연구: 2000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복문화학회지, 12(2), pp. 120-121.

1990년대는 세기말에서 오는 사회현상과 동양문화에 대한 서구인들의 열광으로 혼합현상이 더욱 다양하게 고조되어 현대 복식에 혼합되었다. 서양과는 다른 문화를 가진 동양이라는 대등한 인식과 서구 문화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동양 문화가 커다란 화두가 되었고[67], 문화의 혼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상은 21세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대중매체와 인터넷, 인공위성의 발달로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공유가 가능해졌고, 타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아져 다양한 문화가 서로 혼합되어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해내는 타문화 혼합현상이 심화되었다.[68] 특히 21세기의 타문화 혼합현상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동·서양의 퓨전을 예를 들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의 동양과 서양의 혼합현상은 동·서양의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 다양한 퓨전 패션으로 연출되고 있다. 에스닉(ethnic)적인 요소들이 서양 스타일과 접목되어 동양식 자수나 스팽글 등의 화려한 디테일을 보이거나 고유복식의 실루엣이나 문양, 색채 등을 차용하여 발전되고 있다.[69] 중국풍의 혼합패션의 경우, 치파오나 만다린 등의 중국복식을 바탕으로 차이니즈(Chinese) 칼라와 자수, 상의의 트임이나 치마 단의 슬릿, 화려한 중국문양 등을 응용한 디자인들이 현대 패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은 Roberto Cavalli 2003년 S/S 컬렉션으로 중국풍의 화려한 자수와 프린트가 놓인 치파오 형태를 응용한 드레스이다. 이 작품은 중국의 전통문양을 재해석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였고, 중국 고유의 전통 착장방법을 현대적인 연출방법으로 응용하였다. <그림 2>는 Ulyana Sergeenko 2014년 F/W 컬렉션으로 서양식 뷔스티에를 바탕으로 만다린 칼라가 달아 중국 전통의상과 서양복식의 혼합을 표현하였다. <그림 3>

67) 박문희(2009). 전게서, p. 29.
68) 이유미(2001). 전게서, pp. 25-27.
69) 조영아(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모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2-44.

은 Giambattista Valli 2013년 F/W 컬렉션으로 중국 전통 도자기의 문양을 의복에 접목하여 화려하게 응용하였고, <그림 4>는 Gucci의 2016년 F/W 컬렉션으로 중국 전통복식인 치파오의 형태에 현대적 문양과 액세서리 등을 함께 연출하여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혼합을 보여주었다.

일본풍의 혼합패션은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와 옷을 여며주고 장식하는 허리대 오비(Obi), 일본 전통문양과 자수, 일본식 나막신인 게다 등을 응용한 디자인들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는 Kenzo의 2011년 S/S 컬렉션으로 기모노가 연상되는 앞여밈의 의상과 오비, 게다를 함께 연출하여 일본 전통의상과 서양복식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Giorgio Armani 2011년 F/W 컬렉션으로 관능미를 더한 기모노 스타일의 벨벳 드레스와 오비를 연상시키는 넓은 벨트, 포인트로 수놓아진 화려한 꽃무늬, 일본식으로 틀어 올린 헤어스타일 등을 통하여 일본풍의 혼합패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은 Prada의 2013년 S/S 컬렉션으로 기모노를 어깨에 걸친 듯 한 실루엣과 일본식 버선, 전통 신발의 게다를 활용하여 일본 스타일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본풍의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접목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풍의 혼합패션은 한국복식인 한복의 선과 형태를 차용하거나 색동이나 전통 소재, 문양 등을 활용한 다양한 스타일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림 8>은 Christian Dior 2011년 S/S 컬렉션으로 한복 치마의 형태와 고름을 응용한 드레스이며, <그림 9>는 Chanel의 2016년 Cruise 컬렉션으로 한국 전통 소재인 모시 조각들을 이어 한복 치마와 두루마기를 디자인 하였고, 플리츠 장식기법을 응용하여 두루마기의 깃을 만들어 한국적 구성요소와 서양식 장식기법을 혼합한 패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은 Carolina Herrera 2011년 S/S 컬렉션으로 한복 저고리와 서양식 바지를 매치하고 한국의 전통 관모인 갓을 착용함으로써 한국적이면서도 서양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 Roberto Cavalli
2003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5. 29,
https://kr.pinterest.com/
colleenmonet/cavalli/)

<그림 2> Ulyana Sergeenko
2014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7. 10,
http://www.style.co.kr/collection/vie
w.asp?scd_code=3776)

<그림 3> Giambattista Valli
2013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6. 22,
http://www.livingly.com/runway/Couture+
Fall+2013/Giambattista+Valli)

<그림 4> Gucci 2016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7. 31,
http://runway.vogue.co.kr/2016/02/25/r
eady-to-wear-2016-fall-gucci-collecti
on/#0|14)

<그림 5> Kenzo 2011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5. 16, https://kr.pinterest.com/pin/451697037596784136/)

<그림 6> Giorgio Armani 2011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6. 05, https://dagaziober.wordpress.com/2011/07/05/giorgio-armani-prive-hc-fw-11-12-paris/)

<그림 7> Prada 2013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5. 12, http://www.elle.co.kr/runway/Cview.asp?intSno=2314&MenuCode=en010804#&slider1=2)

<그림 8> Christian Dior 2011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7. 20, https://namu.wiki/w/%ED%95%9C%EB%B3%B5)

<그림 9> Chanel 2016 Cruise
(출처: 검색일자: 2016. 06. 04, http://chanel-news.chanel.com/en/home/2015/05/the-hanbok.html)

<그림 10> Carolina Herrera 2011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5. 30, http://www.instiz.net/pt?no=390029&page=12)

2. 상·하위문화의 혼합

패션에서의 상류와 하류의 개념은 개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이분법적인 대립관계이었다. 사회가 구조화되고 의복의 신분표시기능이 가능해지면서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신분에 합당한 대우를 유도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복을 사용하는 등, 자기표현의 도구로서 의복이 사용되었다[70]. 이로써 일반인들은 상류계층의 복식문화를 모방하고자 하였고, 21세기에도 사회계층의 구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특정계급에게만 해당되는 패션 디자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상·하위문화의 혼합은 1950년대 테디보이(teddy boy)에 이어 1960년대의 영 패션(young fashion)의 등장으로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기성의 사회통념이나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에의 귀의(歸依) 등을 강조하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히피(hippie)가 등장하게 된다.[71] 이들 사이에는 물질 만능과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항의식이 생겨 머리모양이나 복장, 습관, 사고방식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패션에 있어서는 자유로움과 반전의 상징인 꽃을 프린트나 액세서리로 많이 사용하였고, 손뜨개나 패치워크, 전원풍의 집시 의상이나 술 장식의 인디언, 케이프와 자수 장식 등이 유행하였다.[72] (그림 11)

테디보이가 채택한 에드워디안 스타일(Edwardian style)은 1950년 상류계급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길고 피트 된 룩(long, fitted look)으로 좁은 어깨, 벨벳 장식, 외줄 단추재킷, 짧고 좁은 바지, 넥타이, 타이핀, 브로케

---

70) 신인수 외 3인(2003). 현대패션의 이해. 서울: 교학연구사, pp. 21-22.
71) 패션전문자료사전. 자료검색일 2016. 05. 25,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0507&cid=42822&categoryId=42822
72) 박준현(2010). 21세기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히피와 펑크풍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5.

이드 조끼, 좁은 챙의 보울러, 은장식의 지팡이 등을 지칭한다[73].(그림 12) 그러나 1952년 초기, 런던 지역의 노동계급 청년들이 상류 계급의 에드워드 룩을 착장하여 치장하기 시작하였으며[74], 이들의 스타일은 펑크(Punk)스타일로 이어져 갔다. 펑크는 원래 미성숙한 풋내기, 소극적인 동성애, 젊은 악당,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 저질이거나 값어치 없으며, 정신, 건강에서 허약함 등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펑크 룩은 런던 뒷골목에서 등장한 하위문화를 뜻한다[75].(그림 13) 1970년대 말에 시작된 펑크 룩은 스트리트 패션의 시초이었으며, 이러한 하류층의 문화는 상류층 문화에 영향을 주기 시작 하였다.[76] 이러한 유행이 상향 전파되었고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여 층층이 껴입는 지저분하고 헝클어진 스타일인 그런지(Grungy)스타일의 상향 전파 현상이 급속도로 발달되었다.[77](그림 14) 즉,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빈곤의 이미지가 확산되어 패션 디자이너들이 대중으로부터 영감을 얻게 되었고, 하위문화로부터 출발한 의복이 상류의 엘리트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특히 70년대 말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영국 청년노동자 계급을 대면하는 반문화적, 반지식적 그룹인 펑크족의 스타일은 Vivienne Westwood를 선두로 Zandra Rhodes, Body Map, Jean Paul Gaultier 등 많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펑크패션은 하류층, 무산계층에서 유행되는 스타일이 하이패션에 영감을 준 '유행의 상향 전파'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78]

---

73) 양미경(2002). 하위문화맥락에서 본 패션형태의 변화(2).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4(1), p. 65.
74) 양미경(2002).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0.
75) 박준현(2010). 전게서, pp. 26-31.
76) 이정후(1998).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0-51
77) 신상옥(200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 354.

<그림 15>는 Anna Sui 2014년 S/S 컬렉션으로 꽃과 동양풍의 자수가 수놓아진 드레스와 손뜨개 한 가디건, 풀어헤친 긴 웨이브 머리 등을 통하여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히피룩을 보여준다. Roberto Cavalli 2017년 S/S 컬렉션의 <그림 16>은 전원풍의 히피스타일로 각기 다른 문양과 소재를 연결한 맥시 드레스(Maxi dress)이다. 화려한 색의 자수와 로맨틱한 블라우스 소매로 화려하면서도 이국적인 히피스타일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17>은 Moschino의 2003년 F/W 컬렉션으로 2000년대 펑크 룩을 새롭게 재해석한 디자인이며,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는 부드러운 느낌 속에서 펑크 룩의 와일드함을 보여주는 룩으로 나타난다. <그림 18>은 Jean Paul Gaultier 2011년 S/S 컬렉션으로 끝이 뾰족한 징과 금속 디테일, 차가운 느낌의 광택 및 블랙과 레이스의 사용으로 중성적이면서도 데카당스(Decadence) 스타일의 퓨전 펑크 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9>는 Vivienne Westwood 2003년 S/S 컬렉션으로 골드 드레스 위에 커다란 점퍼와 찢어진 니트를 매치하고 신발 끈을 빼버린 하이힐을 구겨 신어 파격적인 그런지룩을 선보였고, <그림 20>은 Dries Van Noten의 2013년 S/S 컬렉션으로 이질적인 패턴의 혼합과 다양한 아이템들의 레이어링을 통하여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런지 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히피, 펑크, 그런지 스타일은 하위문화의 상향 전파 현상으로 현대 패션에서도 히피, 펑크, 그런지 스타일 등 스트리트 패션에서 영감을 받은 수많은 디자인들을 볼 수 있으며, 이것도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융합에서 오는 혼합현상이라 할 수 있다.

78) 김민자(1987). 2차 대전 후 영국 청소년의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2), pp. 69-89.

<그림 11> Hippie style
(출처: 검색일자: 2016. 06. 28,
http://www.globalfashionreport.com/a408799-anna-sui-chic-s-s-2014-collection)

<그림 12> Edwardian style
(출처: 검색일자: 2016. 07. 05,
http://www.livingly.com/runway/Milan+Fashion+Week+Fall+2010/D+G/d9sKLydtlGk5)

<그림 13> Punk style
(출처: 검색일자: 2016. 05. 27,
http://www.dazeddigital.com/vivienne-westwood-takeover/)

<그림 14> Grungy style
(출처: 검색일자: 2016. 06. 08,
https://www.style.com/#2/)

<그림 15> Anna Sui 2014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7. 02,
https://www.pinterest.com/pin/439101
032390697214/)

<그림 16> Roberto Cavalli
2017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5 .18 ,
https://www.pinterest.com/pin/365214
46957573399/)

<그림 17> Moschino 2003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5. 17,
http://runway.vogue.co.kr/2013/04/17/ready-to-
wear-2013-fw-moschino/#0)

<그림 18> Jean Paul Gaultier 2011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6. 22,
http://www.fashiongonerogue.com/jean-paul-gau
ltier-spring-2011-couture-paris-haute-couture/)

<그림 19> Vivienne Westwood 2003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6. 14,
http://www.vogue.co.kr/)

<그림 20> Dries Van Noten 2013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7. 09,
http://askiaabdull.blogspot.kr/2013/05/neo-grunge-grunge-cleans-up-and-grows.html)

3. 성의 혼합

원시시대부터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어 성적 특성이 조형예술의 하나의 형태로 나타났다. 중세 이 후 바지는 남성, 치마는 여성의 상징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의 행동이 뚜렷이 구분되었다.[79] 성 역할이란, 개인이 속한 문화권 안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로 특정 지워지는 일련의 특성을 의미하며[80], 이러한 성 역할의 기대로 역할의 사고와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명확해졌고, 이러한 사고는 의복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패션의 역사에서 여성이 남성복을 차용하여 입게 된 것은 20세기가 되어서이다. 19세기 중반 여성들의 페미니즘(feminism)의 일환으로 스포츠

79) 박문희(2009). 전게서, p. 109.
80) 이지현(2003). 남자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성역할 정체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웨어로서 바지와 더블 칼라 재킷, 롱스커트의 여성 테일러드 슈트가 등장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중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81].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성들이 남성을 대신하여 사회활동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복을 착용하거나 남성들의 테일러 슈트를 입게 되었다.[82]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중에도 여성의 사회 참여의 필요성과 활동성이 강조되면서 어깨를 각지게 강조하고 라펠이 넓은 슈트가 유행하였다.[83] 전쟁이 끝난 후에도 허리가 좁고 넓은 어깨와 상의 포켓이 있는 남성적인 분위기의 대담함을 강조한 볼드 룩(bold look)[84]이 나타났고 여성의 바지 착용이 일반화되었다.[85] (그림 21)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성 개념의 변화와 여성 해방운동. 성 역할의 변화,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요인들도 인하여 성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성별에 대한 남녀이분법의 구분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디자인의 발상에서부터 성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다[86]. 남성을 대신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남성의 슈트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닌, 사고의 전환에 의해 남성복을 본격적으로 차용하게 된 것이다.[87] 이 시기에 이르러 남성과 여성의 공존을 추구하는 사상이 점차 번져갔고 이에 따라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룩이 등장하였다. 앤드로지너스는 남자를 뜻하는 앤드로(andro)와 여자를 나타내는 진(gyn)의 합성어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88] 앤드로지너스

---

81) 박수현(2005). 전게서, p. 104.
82) 신인수 외 3인(2003). 전게서, pp. 44-46.
83) 성혜정(2014). 2차 세계대전 군복을 활용한 여성의 패션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9.
84) 패션전문자료사전. 자료검색일 2016. 09. 25,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9657&cid=42822&categoryId=42822
85) 최수아(2003). 전게서, p. 87.
86) 김희균(1999). 전게서, pp. 39-40.
87) 금기숙 외 9인(2003). 현대 패션100년. 서울: 교문사, pp. 75-80.
88) 김보희(2015).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 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룩(그림 22)은 여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기존에 남성이 여성의 의복을 착용하고 여성이 남성의 의복을 활용하던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서 만들어진 스타일을 말한다.[89]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히피 문화 속에선 긴 머리와 컬러풀한 상의, 벨보텀 라인(bell bottom line)의 진 팬츠이 유행하였고, 펑크 시대에는 바디 피어싱을 남녀가 함께 즐기면서 성의 구분이 허물어졌으며, 80년대의 후드 점퍼와 스포츠웨어, 90년대의 힙합(hiphop)룩 등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 혼합 현상이 패션에 반영되었다. (그림 23)

패션계에서도 1984년 말부터 성의 혼합 현상은 Jean Paul Gaultier, Giorgio Armani, Yohji Yamamoto 등에 의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발표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Vivienne Westwood가 슬래쉬(slash) 장식 요소가 들어간 하의와 남성용 셔츠 차림에 얼굴에는 남성 전용의 쉐이빙 폼 자국을 묻힌 여성 모델을 등장시켜 여성에게 남성적인 이미지를 덧입하기도 하였다.[90]

21세기에 이르러 다원화 사회가 더욱 가속화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이 희미해져 가면서 이러한 성의 혼합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결과로 앤드로지너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젠더리스(genderless) 룩이 나타났다. 젠더리스는 성의 구별이 없거나 중성적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로[91], 젠더리스 스타일은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하나로 통합시켜 휴머니즘과 양성성을 강조한 디자인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gender)의 개념을 초월한 중성성을 표현하는 스타일을 의미한다.(그림 24)

<그림 25>는 Giorgio Armani 2014년 S/S 컬렉션으로 정장 자켓과 반바지에 짧게 커트한 헤어스타일로 남성성을 나타내었으며, 안에는 얇은

89) 김소라(2003).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 연구: 2001 S/S~ 2003 S/S 패션 디자이너 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0-41.
90) 최수아(2003). 전게서, p. 89.
91) 박수현(2005). 전게서, p. 105.

쉬폰 소재의 블라우스를 착장하여 여성성을 부각시켰다. <그림 26>은 Yohji Yamamoto의 1999년 S/S 컬렉션으로 남성용 자켓과 같은 색의 바지를 착용하여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디자인이 아닌 양성성을 강조한 젠더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7>은 Jean Paul Gaultier의 2015년 F/W 컬렉션으로 남성성을 강조하는 가죽 자켓과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스커트를 함께 착용한 모습이다. 이성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아이템을 모방하였다는 점에서 앤드로지너스 룩이라 할 수 있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합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Vetements 2015년 F/W 컬렉션인 <그림 28>은 나팔 소매의 박시한 오버사이즈 롱 셔츠와 롱 슬렉스, 가죽벨트와 함께 하이힐을 매치하여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젠더리스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남성의 기본 아이템인 셔츠와 슬렉스, 벨트와 함께 여성성을 강조하는 하이힐을 조화시켜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다시 트렌드의 중심에 선 유니섹스(unisex) 룩은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 모두 입을 수 있었던 편하고 무난한 옷이라기보다는 남녀 누구나 입고 싶어 할 만큼 감각을 갖춘 의상이며(그림 29),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이 주도한 남성복 트렌드는 보다 가늘고 부드러운 실루엣, 과감한 디테일, 컬러풀한 색상 등으로 여성복과의 경계선에 가까이 다가갔다. 2007년까지 Dior Homme의 디자인을 맡은 Saint Laurent는 영국풍 락 쉬크(rock chic)를 입은 말라깽이 소년 모델들로 무대를 채워 남성복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었고, 그의 좁고 가녀린 슈트를 입고 싶어 하던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다이어트에 돌입하도록 부추겼다.(그림 30)

<그림 21> Bold look
(출처: 검색일자: 2016. 05. 18,
https://kr.pinterest.com/pin/384635624
408227252/)

<그림 22> Androgynous look
(출처: 검색일자: 2016. 07. 21,
http://www.ontheedgeblog.co.uk/2016/03
/genderless- fashion.html)

<그림 23> Hiphop look
(출처: 검색일자: 2016. 06. 01,
http://maidennoir.co.kr/1859)

<그림 24> Genderless look
(출처: 검색일자: 2016. 07. 27,
http://www.fashiongonerogue.com/gen
derless-fashion-trend/)

<그림 25> Giorgio Armani
2014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6. 22,
http://www.thefashionspot.com/runway-news/336293-giorgio-armani-spring-2014/#/slide/1)

<그림 26> Yohji Yamamoto
1999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6. 22,
http://66lanvin.tumblr.com/post/133019456124/dotcomme-women-walking-the-mens-runway-yohji)

<그림 27> Jean Paul Gaultier 2015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5. 14,
https://kr.pinterest.com/pin/474637248200837711/)

<그림 28> Vetements 2015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6. 22,
https://www.pinterest.com/pin/46443439883941908/)

<그림 29> Unisex look
(출처: 검색일자: 2016. 05. 02,
http://fashionmagazine.com/tag/rad-hourani/)

<그림 30> Metro Sexual look
(출처: 검색일자: 2016. 08. 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cec&sid1=110&018
&aid=0001942850)

4. 시간의 혼합

급속한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과거의 낭만을 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심리적 현상으로 인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혼합하여 공존시키고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92].

시간의 혼합은 시간을 축으로 과거와 미래의 요소들이 혼합하여 공존하는 움직임으로 이러한 경향은 현재라는 시간의 축으로 과거와 미래 사이를 회전하고 있다. 즉, 시간의 혼합은 과거, 현재, 미래의 혼합으로서 각각의 특성이 혼합하여 나타나는 '시대의 혼합'이다.[93]

---

92) 이유미(2001). 전게서, p. 53.
93) 박문희·김차현(2001).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시간혼합의 디자인 특성.

90년대 중반부터는 각 시대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시대적 경계를 무너뜨려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과거와 미래적인 요소들을 혼합시켜 두 가지 특징이 공존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거와 현재를 적절히 조화시킨 복고풍과 밀레니엄 스타일, 16-18세기 유럽과 동양 스타일의 반영 등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1995년 F/W 컬렉션에서는 역사주의라는 테마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화려하고 귀족적인 아이템이 주류를 이루었던 르네상스(renaissance)나 로코코(rococo) 양식, 중국의 과거 권위적인 의상들이 현대적 라인과 융화되어 등장하기도 하였다[94]. 패션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혼합현상은 원시주의와 복고주의의 레트로(retro) 룩과 프리미티브(primitive)룩을 그 예시라 할 수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혼합현상은 미래적인 감각이 풍부한 패션을 총칭하는 퓨처리즘(futurism) 룩을 들 수 있다.[95]

레트로 룩(그림 31)은 복고주의를 지향하는 스타일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복고주의나 과거 지나간 시대의 패션을 현 시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 재해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옛 것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기 위해 과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감각을 현대와 접목하여 현대적 감성에 맞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 하는 것을 의미한다.[96] 또한 프리미티브 룩(그림 32)이란 바쁘고 발달된 일상생활에 지쳐 원시로 돌아가고픈 인간의 욕망에서 나타난 패션으로,[97] 1970년대 후반의 에스닉 패션이나 이집트의 상형

디지털디자인학연구지, 11(1), p. 806.

94) 정삼호(1996). 현대패션모드. 서울: 교문사, p. 12.

95) 박문희·김차현(2001). 전게서, pp. 805-809.

96) 위키백과. 자료검색일 2016. 06. 12, 자료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B%A0%88%ED%8A%B8%EB%A1%9C

97) 두산백과. 자료검색일 2016. 07. 23,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212&cid=40942&categoryId=32087

문자, 잉카의 네이티브 패턴을 즐겨 사용한 패션을 프리미티브 룩이라고 할 수 있다.[98] <그림 33>은 Victor&Rolf 2002년 S/S 컬렉션으로 중세풍 십자가나 열쇠 장식등의 중세풍 액세서리들을 사용하였으며, 블랙 대신 화이트 컬러를 많이 사용하여 조금은 더 밝고 순결한 종교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34>는 Dolce&Gabbana 2006년 F/W 컬렉션으로 18세기 마리 앙투아네트(Marie-Antoinette)를 연상시키는 꽃무늬 실크 레이스 소재의 블라우스와 네크라인과 소매, 앞가슴에 풍부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스칼럽(scallop)을 통하여 당시 풍요로웠던 빅토리아 시대를 연상시키고 있다. 또한, 스키니 진이나 가죽 팬츠와 같은 현대적인 아이템과 함께 매치하여 시크한 21세기의 빅토리안 룩을 완성하였다. Ralph Lauren 2017년 F/W 컬렉션인 <그림 35>는 18세기 남자 복식인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a la francaise)의 코트 형태로 커프스 부분에 수 장식과 브레이드 장식을 하였고, 네크라인에 러플이 화려한 블라우스를 매치하여 과거 유행하였던 복식과 넥웨어(neck-wear)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림 36>은 MiuMiu 2016년 F/W 컬렉션으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유행하였던 밀리터리 룩을 현대적으로 접목하였다. 코듀로이 소재를 사용하여 각진 어깨와 남성적인 테일러트 슈트 형태를 나타내어 현대패션에 나타난 과거와 현재의 혼합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혼합 패션을 총칭하는 퓨처리즘(futurism)룩(그림 37)은 미래적인 감각이 풍부한 패션을 총칭하며, 블랙이나 화이트, 실버 등을 주로 사용한 의상이나, 지오메트릭(geometric) 프린트를 화려하게 배합한 의상, 기하하적인 선이나 점의 배치, 독특한 재단 등으로 구성된 패션을 의미한다. <그림 38>은 Iris van Herpen 2012년 S/S 컬렉션으로 미래 생물을 표현한 듯한 기하학적인 실루엣과 차가우면서도 광택이 나는 갈색

98) 은숙·박재옥(2011). 1980년 이후 자연주의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9(6), pp. 1260-1263.

소재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퓨처리즘 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9>는 Malo의 2004년 F/W 컬렉션으로 과다한 장식이나 디테일이 없는 몸에 밀착된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을 선보였고, 규칙적이고 명료한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과 금속성 색채의 반사효과로 디지털시대의 차갑고 기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Matthew Williamson의 2007년 F/W 컬렉션인 <그림 40>은 골드색상의 단단하고 남성적인 이미지의 금속의 다각형을 의복 가슴부분에 부착하여 각도에 따라 빛이 반사되는 효과를 주었고, 이러한 장식적 요소로 전이적이며 미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31> Retro look
(출처: 검색일자: 2016. 07. 02,
http://www.risorseutili.com/fashion/1571-fashion-retro-trends-new-collection-fall-winter-clothing.html)

<그림 32> Primitive look
(출처: 검색일자: 2016. 05. 30,
http://chicnewsm.mk.co.kr/article.php?aid=1458895055103210004)

<그림 33> Viktor&Rolf
2002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6. 24,
http://www.vogue.co.kr/)

<그림 34> D&G 2006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5. 28,
http://runway.vogue.co.kr/2008/10/15
/ready-to-wear-2006-ss-dg/#0)

<그림 35> Ralph Lauren
2017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7. 06,
http://sofiazchoice.tumblr.com/post/13
9703695888/ralph-lauren-fall-2016-rea
dy-to-wear)

<그림 36> MiuMiu
2016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7. 11,
http://www.designscene.net/2016/01/
miu-miu-fall16-backstage.html)

<그림 37> Futurism look
(출처: 검색일자: 2016. 05. 26,
https://kr.pinterest.com/pin/524739794
057953559/)

<그림 38> Iris van Herpen
2012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7. 10,
http://www.suckerpunchdaily.com/201
2/07/13/23679/irisvh-ah1213-684/)

<그림 39> Malo 2004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9. 04,
http://www.vogue.co.kr/)

<그림 40> Matthew Williamson
2007 F/W
(출처: 검색일자: 2016. 10. 29,
http://www.fi.co.kr/collection/review.
asp?idx=991)

5. 소재의 혼합

현대 사회에서는 정형화되어 있는 아름다움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차별성에서 오는 독특하고 끊임없이 도전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급스럽고 다양한 소재의 혼합이 나타나고 있으며,[99]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독특한 소재의 개발과 응용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발상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의복의 소재가 직물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이후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소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신소재의 출현 및 소재의 혼용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100] 즉, 소재의 혼합은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소재나 상반된 소재를 사용하여 소재 자체의 경계를 허물었고, 소재 표현의 풍부함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 가볍고 얇은 섬유와 무겁고 두터운 섬유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이를 혼합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과거에는 성별에 따라 어울리는 소재, 특징, 시즌에 적합한 소재가 각각 나뉘어져 있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소재의 혼합은 더욱 더 자유로워졌다.[101]

패션에 있어서 소재의 혼합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타일은 믹스 앤 매치(Mix and Match)이다. 믹스 앤 매치란, '잡다한 것을 짜 맞춤,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 짜 맞춤' 또는 '균형이 맞지 않는 것끼리 짝지음'을 의미한다.[102] 현대패션에서의 믹스 앤 매치는 형태의 왜곡이나 과장, 분해

99) 박유(2000). 패션소재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한 패션소재기획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4-87.
100) 하미향(2009). 소재혼합과 미니멀 표현에 의한 섬유제품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101) 최수아(2003). 전게서, p. 94.
102) 김보영(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Mix&Match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와 재조합, 이질적인 요소들의 조화, 기존구성방식을 부정하고 탈피 등의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으며[103], 서로 다른 소재의 혼합은 기존 소재의 사용 범위를 초월한 것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메탈릭(metalic) 소재, 재질이 다른 이질적인 소재 등으로 극단적인 대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소재간의 혼합은 불투명한 가죽이나 투명한 시폰(chiffon), 퍼(fur) 등의 장식적인 소재와 소재 자체의 기능적인 용도 외의 사용 범위를 초월하여 쓰이고 있으며. 그 외 이질적인 소재로 플라스틱이 활용되고 있다.[104] 따라서 평범한 소재일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소재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소재에서의 혼합은 소재의 두께, 투명도, 광택의 정도, 패턴의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두께에 따른 소재 혼합에서는 모피, 가죽, 트위드, 굵은 느낌의 니트 등의 두껍고 부피감이 있는 소재와 비교적 얇은 소재인 레이스, 시폰, 오간자, 면 등을 혼합하여 촉각적으로 만져지는 느낌을 주는 두 소재의 조합으로 이질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105]
<그림 41>은 Sonia Rykiel 2016년 F/W 컬렉션으로 소매부분의 퍼 소재와 뱀피 자켓을 얇은 소재의 블라우스와 믹스 매치하여 두 소재간의 질감의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는 Alexander McQueen 2017년 S/S 컬렉션으로 부피감이 있는 니트와 얇은 레이스가 혼합되어 연출되었으며, Alberta Ferretti의 2016년 F/W 컬렉션인 <그림 43>은 벨벳과 새틴 소재의 드레스에 레이스를 장식하여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소재들 간의 혼합을 시도하였다.

투명도에 따른 소재 혼합에서는 불투명한 가죽과 투명한 쉬폰, 비닐,

---

103) 김소정(2007). Mix & Match Style 소재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104) 박문희(2009). 전게서, p. 117.
105) 김지혜(2014). 소재의 혼합과 반복구조를 통한 질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노방 등을 혼합시키거나, 유광의 에나멜 소재와 울 소재의 혼합으로 광택의 유무를 볼 수 있다. 또한, 모피소재와 퀼팅소재의 혼합을 통해 서로 이질적인 느낌의 패턴 매치로 한 가지 소재가 가지는 밋밋함을 서로 대비되는 소재를 통하여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106].

<그림 44>는 Louis Vuitton 2011년 F/W 컬렉션으로 속이 비치는 얇은 소재로 시스루룩을 연출하면서 광택이 잇는 가죽으로 대비되는 소재의 혼합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45>는 Veronique Branquinho 2016년 F/W 컬렉션으로 속이 비치는 소재인 레이스와 불투명한 스웨이드를 혼합하여 시원하면서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Gucci의 2015년 F/W 컬렉션인 <그림 46>에서는 가죽 주름스커트와 레이스 소재의 상의를 믹스매치하여 소재의 혼합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광택의 정도에 따른 소재의 혼합에서는 같은 색일지라도 밋밋하고 매트한 느낌의 무광택 소재와 빛의 반사가 가능한 광택 소재를 혼합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독특함을 주고 있다. <그림 47>은 Karl Lagerfeld 2010년 F/W 컬렉션으로 무광택 소재와 빛 반사가 잘되는 소재를 혼합하여 광택의 대비를 보여주었고, <그림 48>은 Paco Rabanne 2014년 F/W컬렉션으로 광택 소재로 만든 독특한 패턴의 베스트와 매트한 소재의 원피스를 함께 연출하여 광택의 유무에 따른 소재의 혼합을 보여주었다. <그림 49>는 Gareth Pugh 2015년 F/W 컬렉션으로 블랙컬러의 광택소재와 무광택소재를 혼합하여 절제감과 신비감을 더하였으며, 광택의 대비를 통하여 광택 소재를 사용한 부분의 강조효과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패턴은 소재의 일부분으로 무늬가 없는 직물이 가지지 못하는 다양한 시각적 효과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이를 조합하여 서로 다른 매치를 하는 것 역시 소재의 혼합이라 할 수 있다[107].

---

106) 하미향(2009). 전게서, pp. 8-9.
107) 김지혜(2014), 전게서, p. 5.

<그림 50>은 Issey Miyake의 2016년 S/S 컬렉션으로 같은 소재를 사용하였지만, 패턴의 크기 및 방향, 간격을 각기 다르게 배치하여 화려함과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소재를 다양하게 혼합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디자인의 특수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시각이나 촉각, 계절감 등을 표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소재의 혼합사용을 통하여 의복이 보여주고자 하는 특유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재를 선택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 Sonia Rykiel
2016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7. 18,
http://runway.vogue.co.kr/)

<그림 42> Alexander McQueen
2017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5 .11 ,
http://www.elle.com/runway/g28951/alexander-mcqueen-runway-pfw-spring-2017/?slide=10)

<그림 43> Alberta Ferretti
2016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6. 04,
http://www.livingly.com/runway/Milan+Fashion+Week+Fall+2016/Alberta+Ferretti/Backstage/ftqwb8SUmbv/)

<그림 44> Louis Vuitton
2011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5. 15,
http://runway.vogue.co.kr/)

<그림 45> Veronique
Branquinho 2016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6. 22,
http://www.fashionising.com/runway/b--veronique-branquinho-aw-16-99179.html)

<그림 46> Gucci
2015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7. 19,
https://nowfashion.com/gucci-ready-to-wear-fall-winter-2015-milan-13283)

<그림 47> Karl Lagerfeld 2010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5. 21, http://www.style.co.kr/collection/view.asp?scd_code=2108#144399_1_1)

<그림 48> Paco Rabanne 2014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7. 04, http://runway.vogue.co.kr/)

<그림 49> Gareth Pugh 2015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6. 18, http://graveravens.tumblr.com/post/111724309641/gareth-pugh-ready-to-wear-fw-2015-lfw)

<그림 50> Issey Miyake 2016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6. 23, http://www.fashionisers.com/fashion-news/issey-miyake-spring-2016-rtw/)

6. 장르의 혼합

장르의 혼합은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으로 장르 내의 분화에 의해 새로운 창조 형태의 예술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술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자유롭게 나타나 디자인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였던 계기라 할 수 있다. 방기정(201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탈장르화라고 표현하였으며, 장르의 해체와 진화, 즉, 장르 간의 혼합 현상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며 그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John Walker(1997)는 탈 장르화 현상을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다원화경향이 반영된 태도이다.'라고 하였으며 장르의 개념이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왔다고 하였다.[108] 즉, 탈 장르화 특성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동일한 영역에서의 혼합과 해체과정을 통해 발전된 사고와 새로운 시도로 융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109] 이러한 장르의 혼합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확장된 개념으로 대중과 공유하는 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퍼포먼스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 전반의 양식과 폭의 확대로 실험적인 경향도 보이고 있다.[110]

과학의 발전과 함께 현대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이라는 획일적인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개개인마다의 시간 활용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상황에 맞게 복식을 선택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보다 개성 있고 편리한 의복을 입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왔다. 과거처럼 "일상복이나 외출복,

108) 문석우(2003). 장르 진화란 무엇인가?.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pp. 22-25.
109) 방기정(2011). 전게서, pp. 41-43.
110) 이일형(1995). 전게서, pp. 35-37.

데이 웨어(day wear)나 이브닝 웨어(evening wear), 일상복이나 스포츠 웨어"와 같은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즉, 서로 상반된 장르들이 만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느낌의 스타일을 재창조하는 탈 장르화와 장르의 혼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111]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속옷의 겉옷화는 21세기에 이르러 더욱 활성화되어 속옷이나 란제리가 더 이상 은밀하게 입혀지지 않고 겉옷의 디자인적 요소로 부분 도입되거나 속옷 자체가 하나의 패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112] <그림 51>은 Miwha Hong 2003년 S/S 컬렉션으로 블라우스 상의 위에 여성속옷 형태의 의복을 덧입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착장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얇은 쉬폰에 레이스를 몇 겹씩 겹친 러플을 달아 파자마 같이 보이는 드레스와 브래지어를 셔츠와 블라우스 위에 덧입어 이너웨어(inner wear)를 아웃 웨어(out wear)로 변화시키는 디자인적 시도가 나타났다. <그림 52>는 Under Cover 2005년 S/S 컬렉션으로 쉬폰과 레이스, 실크소재를 사용하여 파자마룩을 아웃웨어로 연출하였고, <그림 53>은 Salvatore Ferragamo의 2012년 Resort 컬렉션으로 실크소재의 파자마 위에 반짝이는 스팽클 자켓을 매치하여 장르의 혼합을 시도하였다.

스포티 퓨전(sporty fusion)은 운동복이 평상시에도 널리 입혀져 일상복과 스포츠 웨어의 장르간의 간격이 깨지게 된 현상으로 21세기 이후 웰빙(well-being) 바람이 불면서 가속화되었다. 피트니스(fitness)와 헬스클럽(health club)의 유행과 함께 운동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편안한 실루엣을 지향하게 된 대중들에 의해 유행되었다. 유니폼이나 전문 트레이닝 룩에서 따온 것과 같은 간결한 라인의 스포티한 의상들이나 액세서리들은 모피 케이프나 테일러드 슈트, 쉬폰 드레스 등과 함께 입혀져

111) 박수현(2005). 전게서, p. 95.
112) 최수아(2003). 전게서, p. 79.

서로 다른 장르의 의상들이 함께 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54)

일반적인 패션계에 스포티함이 유입되어 그 경계가 모호해진 것과는 달리, 역으로 스포츠 웨어(sportswear)와 레저 웨어(leasure wear) 생산자들이 패셔너블한 어패럴을 강조한 엑설사이즈 웨어(exercise wear)를 생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Y-3'가 바로 스포츠 웨어에 하이패션의 디자인 요소를 적극 투입시킨 예시이다. 스포츠 전문 브랜드인 Adidas와 디자이너 Yohji Yamamoto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Y-3'는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과 디자이너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서로 혼합되어 윈윈 전략(win-win)을 꾀한 사례라 할 수 있다.(그림 55)

<그림 56>은 Coach 2016년 F/W로 여성스러운 자카드 무늬의 스커트와 스포츠 야구 점퍼를 코디하여 평상시에도 널리 입혀질 수 있는 스포티 퓨전 룩을 선보였으며, <그림 57>은 Chanel 2017년 S/S 컬렉션으로 클래식한 샤넬 코트와 야구모자, 스포티한 시계를 매치하여 여성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8>은 Moncler Grenoble 2016년 F/W 컬렉션으로 스포츠웨어 중 스키복과 보온성이 가미된 드레스, 턱시도를 혼합하여 서로 상반된 장르들이 만나 새로운 느낌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장르의 혼합은 이너웨어나 스포츠웨어뿐만 아니라 특수복, 작업복, 유니폼 등의 디테일이 현대 패션에 적용되어 도입되거나 고기능성과 보호적인 특성이 강화된 아웃도어 웨어와 지퍼, 버클 장식 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59>는 Soe 2013년 F/W 컬렉션으로 일상 생활에서 착용되는 작업복을 현대패션에 적용시킨 사례이며, <그림 60>은 Versace 2014년 S/S 맨즈컬렉션으로 엔지니어복의 형태와 벨트를 차용하여 작업복과 하이패션의 장르혼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은 Marcelo Burlon 2015년 F/W 컬렉션으로 특수복인 우주복을 현대패션에 응용하여 우주복의 실루엣과 고기능성 보온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1> Miwha Hong
2003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6. 29,
http://runway.vogue.co.kr/)

<그림 52> Under Cover
2005 S/S
(출처: 검색일자: 2016. 5. 22,
https://kr.pinterest.com/pin/424956914813214314/)

<그림 53> Salvatore Ferragamo
2012 Resort
(출처: 검색일자: 2016. 07. 12,
http://www.fashiongonerogue.com/salvatore-ferragamo-resort-2012-collection/)

<그림 54> Sporty Fusion look
(출처: 검색일자: 2016. 05. 25,
http://figureoutthefashiontrend.blogspot.kr/2014/05/paris-springsummer-fashion-week-2014.html)

<그림 55> Y-3 2017 F/W
(출처: 검색일자: 2016. 6. 04,
http://baddesign139.com/journal/2016/01/y-3-fall-20162017-menswear-pfw-2/)

<그림 56> Coach
2016 F/W
(출처: 검색일자: 2016. 5. 17,
http://www.thefashionspot.com/runway-news/680031-coach-fall-2016-runway/)

<그림 57> Chanel 2017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7. 23,
http://www.elle.com/fashion/news/a39746/chanel-spring-summer-2017-show-recap/?zoomable)

<그림 58> Moncler
Grenoble 2016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6. 11,
http://www.denimjeansobserver.com/mag/2015/02/15/moncler-grenoble-new-york-fashion-week-2015-2016-fall-autumn-winter-mens-womens-love-factory-outerwear-parka-puffer-furry-snow-ski-surf-outdoors/)

<그림 59> Soe 2013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7. 02,
http://tokyotelephone.com/soe-aw-2012-13-collection-modernware-the-man/)

<그림 60> Versace 2014 S/S
(출처: 검색일자: 2016. 06. 30,
https://kr.pinterest.com/pin/133348838
945884577/)

<그림 61> Marcelo Burlon
2015 F/W
(출처: 검색일자: 2016. 05. 19,
http://www.vogue.com/fashion-show
s/fall-2015-ready-to-wear/county-of
-milan)

Ⅳ. 결론

현대 패션의 다원화 현상은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사회 전반에서 혼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날마다 새로운 문화의 산물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늘날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본 결과, 혼합 현상은 '다양성', '공존성', '재조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원론, 탈이성주의, 탈 창조, 해체, 모호성, 고정관념의 탈피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문화나 계층 간의 대립체계가 붕괴되었다. 기존의 비주류문화가 주류문화와 대등한 위치로 부각되어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치들과 문화 양상, 체계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남성과 여성의 성 평등 현상으로 성 혼합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장점이 융합되어 새로운 시대 양식을 만들어내는 시간의 공존성과 동시대의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서로 어우러지는 공간의 공존성도 가지게 되었다. 혼합 문화 내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은 서로 절충되어 새로운 이미지로 재조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특성은 소재나 장르의 혼합으로 연결되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현대 패션을 연출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혼합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혼합 현상에 대한 특성은 동·서양, 상·하위, 남·여, 과거·현재·미래, 소재, 장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동·서양문

화의 혼합과 상·하위문화의 혼합, 성, 시간, 소재, 장르의 혼합으로 구분하여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의 표현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양문화의 혼합'은 두 문화 간의 철학적, 문화적 교류로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동양과 서양의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 다양한 퓨전 패션이 연출되고 있었다. 중국풍의 혼합패션은 치파오나 만다린 등의 중국복식을 바탕으로 차이니즈 칼라와 자수, 상의의 트임이나 단의 슬릿, 화려한 중국문양 등을 응용한 디자인들이 시도되고 있었고, 일본풍의 혼합패션은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와 오비, 일본 전통문양과 자수, 게다 등을 융합한 디자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풍의 혼합패션은 한복의 선과 형태를 차용하거나 색동이나 전통소재, 문양 등을 활용한 다양한 스타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상·하위문화의 혼합'은 하위문화 스타일이 상향 전파되면서 하이패션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어, 1990년대의 하위패션이었던 히피 룩과 펑크 룩, 그런지 룩 등이 상향 전파 현상으로 급속도로 발달되었다. 이러한 하위문화의 확산은 상류 엘리트들에게까지 전파되었고,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도 다양한 영감을 주게 되었다. 즉,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조화와 혼합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들이 도출되게 되었다.

셋째, '성의 혼합'은 여성과 남성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디자인 발상에서부터 성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거부하지 않은 채 서로의 아이템들을 차용함으로써 한 개인에게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 공존하는 성 혼합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패션에 있어서는 유니섹스룩이나 앤드로지너스 룩, 젠더리스룩이 나타나게 되었고,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하나로 통합시켜 양성성과 중성성을 강조한 스타일들이 유행하게 되었다.

넷째, '시간의 혼합'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스타일이 혼합됨으로써 각

시대의 특성이 공존하는 혼합이며, 시대적 경계를 무너뜨려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90년대 중반부터는 각 시대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시대적 경계를 무너뜨려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과거와 미래적인 요소들을 혼합시켜 두 가지 특징이 공존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패션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혼합현상은 원시주의와 복고주의의 레트로 룩과 프리미티브 룩을 그 예시라 할 수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혼합현상으로는 미래적인 감각이 풍부한 패션을 총칭하는 퓨처리즘룩이 발생되었다.

다섯째, 서로 다른 '소재의 혼합'은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소재나 상반된 소재를 사용하여 소재 자체의 경계를 허물어 소재 표현의 풍부함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소재에서의 혼합은 소재의 두께나 광택, 투명도, 패턴의 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질이 다른 이질적인 소재의 대비 등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두껍고 부피감이 있는 소재와 비교적 얇은 소재를 혼합하여 이질적인 느낌을 연출하거나 불투명 혹은 투명한 소재, 광택이 있는 소재와 없는 소재를 혼합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독특함을 주었다. 패턴은 무늬가 없는 직물이 가지지 못하는 다양한 시각적 효과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이를 조합하여 매치를 하는 혼합 역시 현대패션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여섯째, '장르의 혼합'은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으로 장르 내의 분화에 의해 새로운 창조 형태의 예술이 나타나게 되었고, 획일적인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스포티 퓨전, 속옷의 겉옷화 등 패션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자유롭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너웨어나 스포츠웨어뿐만 아니라 특수복, 작업복, 유니폼 등의 의복도 현대패션과 접목되어 작업복과 하이패션의 장르혼합도 살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혼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대 패션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

여 그 시대가 요구하는 스타일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지향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혼합 패션은 그 사회의 반영인 동시에 각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미의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디자이너들이 혼합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창조적인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가지며, 앞으로도 혼합 현상은 세기 말과 밀레니엄에 나타난 일시적인 패션 현상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 연구의 한 방향으로서 개성 있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적 개발의 한 방향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현대 패션의 혼합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창조적인 디자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금기숙·김민자·김영인·김윤의·박명희·박민여·배천범·신혜순·유혜영·최해주(2003). 현대 패션100년. 서울: 교문사.

김경란(2005).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임(2008). 현대 헤어디자인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소라(2003).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 연구: 2001 S/S~2003 S/S 패션디자이너 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정(2007). Mix & Match Style 소재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현(2002). 크로스오버 디자인 연구 확대와 과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자(1987). 2차 대전 후 영국 청소년의 하위문화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2), pp. 69-89.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Ⅱ). 복식문화연구, 37(-), pp. 369-392.

김보영(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Mix&Match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희(2015).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 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혜(2014). 소재의 혼합과 반복구조를 통한 질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하연(2001). 현대 패션의 창조적 디자인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균(1999). 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석우(2003). 장르 진화란 무엇인가?.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박문희·김차현(2001).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시간혼합의 디자인 특성. 디지털디자인학연구지, 11(1), pp. 803-812.
박문희(2009).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문희·임문정(2012). 니트웨어 혼합현상의 특성에 나타난 색채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지, 12(2), pp. 485-494.
박수현(2005).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유(2000). 패션소재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한 패션소재기획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준현(2010). 21세기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히피와 펑크풍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홍(1991). 현대건축과 실내 디자인의 혼성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1(1), pp. 83-97.
방기정(2010).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혜정(2014). 2차 세계대전 군복을 활용한 여성의 패션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상옥(200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신승환(2003).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서울: 살림출판사.

신인수·임상임·김혜경·이진희(2003). 현대패션의 이해. 서울: 교학연구사.

신정임(2008). 현대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혼성모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재룡(2002). 현대패션에 반영된 퓨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미경(2002). 하위문화 맥락에서 본 패션형태의 변화(2).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4(1), pp. 61-67.

양미경(2002).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승혜(2000). 20세기 후반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Fusion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수연(2000). 디지털 시대의 퓨전 문화와 퓨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지, 25(-), pp. 61-67.

은숙·박재옥(2011). 1980년 이후 자연주의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9(6), pp. 1259-1271.

이건희(2009). 재패니즈 룩(Japanese look)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지, 12(2), pp. 119-127.

이유미(2001).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미(2013). 하이브리드 특성을 반영한 니트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일형(1995). 현대 건축의 혼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1(1), pp. 35-41.

이지현(2003). 남자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성역할 정체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후(1998).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영자·김선영(2000). 현대 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0(4), pp. 37-51.

정삼호(1996). 현대패션모드. 서울: 교문사.

정소미(2007). 디자인 호텔의 하이브리드 성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주현·이근(2001). 자동차 디자인의 새로운 트렌드연구: 크로스오버 개념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지, 41(-), pp. 156-157.

정지숙(2005).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중국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아라(2011). 현대 여성 데님 패션의 코디네이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아(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모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기(2004). 현대미술의 혼성성의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경옥·박민여(2000).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복식문화연구, 50(5), pp. 143-157.

최수아(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미향(2009). 소재혼합과 미니멀 표현에 의한 섬유제품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미희(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 세계 4대 컬렉션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정선(2010).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의 혼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 학회지, 10(1), pp. 107-119.

허진설(2013). 크로스오버를 통한 클래식의 대중화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경민(2012). 크로스오버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vin Toffler(1997). 미래 쇼크.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기 타 자 료

Askiaabdull. http://askiaabdull.blogspot.kr/

Bad 139 Design. http://baddesign139.com/journal/

Chanel-news. http://chanel-news.chanel.com/

Daga Ziober. https://dagaziober.wordpress.com/

Designscene. http://www.designscene.net/

Dazed. http://www.dazeddigital.com/

Dictionary.com. http://www.dictionary.com/

Elle Korea. http://www.elle.co.kr/

Fashion magazine. http://fashionmagazine.com/

Fashionising. http://www.fashionising.com/

Fashion Gone Rogue. http://www.fashiongonerogue.com/

Fashion Insight Collection. http://www.fi.co.kr/collection/index.asp

FIGURE. http://figureoutthefashiontrend.blogspot.kr/

Global Fashion Report. http://www.globalfashionreport.com/

Graveravens. http://graveravens.tumblr.com/

Livingly. http://www.livingly.com/

Maiden Noir. http://maidennoir.co.kr/

Now Fashion. https://nowfashion.com/

On the edge. http://www.ontheedgeblog.co.uk/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www.oed.com/

Pinterest. https://kr.pinterest.com/

Sofiaz Choice. http://sofiazchoice.tumblr.com/

Sucker Punch. http://www.suckerpunchdaily.com/

Style.com. http://www.style.com/

The Dictionary of Art. http://www.oxfordartonline.com/

Thesaurus.com. http://www.thesaurus.com/

The Fashion Spot. http://www.thefashionspot.com/

Un Travail En Cours. http://66lanvin.tumblr.com/

Vogue Korea. http://www.vogue.co.kr/

교육학용어사전(201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춘천: 하우동설.

나누위키. https://namu.wiki/

낱말창고. http://www.wordnet.co.k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동아일보(1995. 02. 12). 문화개방과 주체성. http://newslibrary.naver.com/

시크뉴스. http://chicnewsm.mk.co.kr/

인스티즈. http://www.instiz.net/

패션전문자료사전(1997).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화학대사전(2001). 세화 편집부. 경기: 세화.

ABSTRACT

Intermixing Phenomenon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Yang Jing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era themed by industrialization and American-centered common culture, the conflict of dualism world outlook and pluralism world outlook has emerged. In modern society, fashion itself not only has functional use but also interactive effects. In common society, costumes as part of the common culture has gradually become the symbol of the era. In mixed-element phenomenon based on the past-present-future-combined background of the era, the old decoration elements and tradition concepts are again represented in new designs. Districts boundaries has become vague and different cultures mixed with each other positively under the modern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s, transportations and intelligence. The gender and social class concepts has mixed, intermingled, imitated and reused to express.

This phenomenon is not the combination about alienation and uniqueness, it is about putting all the elements into one completely new design. In mixed-elements-featured modern fashion, the styles and characteristics in every different era are constantly changing and renewing and this attempt or pursuit is more likely to be practiced or even become the stable trend.

Thus, my research puts analysis on the mixed-elements phenomenon in modern fashion based on the interpretations of it, with exploring its characteristics and ways of expression becoming the purpose of my research. By analyzing mixed-elements phenomenon b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the sorted-out characteristics of mixed-elements phenomenon is the fundamental background to prove that mixed-elements phenomenon is not just a unilateral cultural phenomenon but a method to achieve the ideal cultural awareness by meeting all needs of the modern people, then re-deconstruct and re-mix it through modern views to enable designers to flexibly utilize it to create better designs. Providing these basic materials is the true meaning of this research.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are as below.

On the beginning we put theoretical analysis based on documents, published materials and previous researches relevant to mixed-elements phenomenon embodied in modern fashion. The research are focused between the time span of 1900-1990, analyzing the mixed-elements phenomena as decades change.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and materials we sorted the most frequent mixed-elements phenomena out and categorized them by their

characteristics as six parts, west and east culture, upper and lower class, sex, time, cloth, modeling, and analyze on post 2000 modern fashion show by mixed-elements features in these six parts. The materials we use in analyzing is collected and chosen mostly from the published works in worldwide fashion show between 2000-2017, from Elle Korea, Fashion magazine, Fashion Insight Collection, Global Fashion Report, Style.com, Vogue Korea etc.

The features of mixed-elements phenomenon in modern fashions are as below.

First, 'intermixing' of west and east' is the philosophical and 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sides. Imitating each other's better parts and interpreting in mixed-elements phenomenon harmonized two cultures and deducted a large variety of modern fashion styles.

Second, 'intermixing of upper and lower class' is the positive inspiration and influence by the cultural style of lower class after ascending to the upper class. In 1990s the lower class Hippie look and Punk look had rapidly spread to upper class, the culture of lower class has been transferred and accepted into the upper class. Many high end custom-made fashion designers absorbed a lot from these cultures. So by intermixing and rebuilding upper class and lower class cultures, designers can gather many useful thoughts and informations.

Third, 'intermixing of sex' is obscuring the line between men and women. In designing, there are no specific distinguish of the two different gender and characteristics of each gender or even a mixture of two genders together can be shown one one individual, and this feature is now emerging and gradually gaining popularity.

Fourth, ‘intermixing of time’ is combining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with the characteristicsn of every part coexist and shown a new way of being modern and creative. In modern fashion, primitivism as well as retro look and primitive look in revivalism combines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intermixing of present and the future is to express the future in a variety of ways, like futurism look.

Fifth, 'intermixing of cloth' is so different from classical concept. This new concept uses cloths which are never used before or contrasted with each other. Different thickness, color, gloss, transparency, combination of cutout and materials of the cloths can enhance the performance of designs.

Sixth, ‘intermixing of modeling’ covers a lot of different areas, presented as artistic gestures by creatively modeling. Explicit concept of time disappears, elements in life diversified like Sporty Fusion, underwear could be dressed out as so on, origina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both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In modern fashion represented by diversified intermixing phenomena, practicability of costumes has constantly transforming towards idealism under the requirements of the era. These phenomena have expressed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reflected different eras' people's requirements of beauty. In the future, intermixing phenomenon is not only about fashion status, but also can play as a trend that constantly draws good designs and researches to meet people's diversified needs, and also can attribute to further exploring in the culture aspects, which demands more attention and researches to be undertaken and specified in this area.